

↑ 코스피 2643.94 (+28.13)	↑ 코스닥 716.48 (+5.22)
↑ 금리 (미국 9년) 2.618 (+0.006)	↓ 환율 (원-달러) 1464.40 (-4.80)

연금개혁
세대갈등 번지나
구조개혁 힘로 예상
08



산불로 폐허가 된 마을 26일 경북 영덕군 영덕읍 석리 마을이 산불로 전소돼 폐허가 되어 있다. <관련기사 2면> /뉴시스

반도체·전자 1분기 실적 갈리나

HBM 출하 감소, 메모리 약세
삼성전자·SK하이닉스 '흐림'
LG전자, 신사업 성장에 '맑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LG전자의 올 1분기 실적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국내 반도체 업계와 전자업계의 희비가 교차될 전망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1분기 실적에 대한 평가는 고대역폭메모리(HBM) 출하량 감소와 메모리 약세로 인해 회의적이다. 반면 LG전자는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 리스크에도 HVAC(냉난방공조사업) 등 신사업 성장에 힘입어 역대급 실적을 기록할 전망이다. 다만 반도체 업계는 2분기부터 메모리 업황 반등에 따른 실적 개선세가 뚜렷하게 나타날 것이라 분석이다.

26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LG전자는 1분기 연결기준 매출액 22조353억원, 영업이익 1조2307억원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형 시장 판매 호조와 냉난방 공조 사업(HVAC) 성장이 실적을 이끈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이번 실적은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 등에도 역대급 실적을 기록할 것이라 점에서 의미가 있다.

반면 반도체업체인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1분기 실적 전망은 회의적이다. SK하이닉스 1분기 영업이익은 전 분기 대비 1조원 이상 감소한 6조원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핵심 공급사인 엔비디아향 HBM 출하량

이 소폭 감소한 것이 실적을 끌어내렸다는 분석이다. TSMC의 첨단 패키징 생산능력이 최대치에 달한 상황에 미국의 반도체 수출 규제가 엔비디아 AI 칩 수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면서 SK하이닉스 역시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의 1분기 영업이익은 지난해 동기 영업이익의 6조6100억원 대비 20% 이상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메모리 약세와 파운드리 적자 확대가 주요 원인이다. 실제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 2조9000억원에 그친 원인으로 메모리 실적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범용 D램 가격 하락때문이다.

삼성전자도 사업보고서를 통해 "올해 메모리 업황이 단기적으로 약세가 전망된다"며 "2분기부터는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시장은 반도체업체 실적 반등이 2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보고 있다. HBM 외 메모리 시장 역시 개선되고 있기 때문이다. 시장조사업체 D램익스체인지에 따르면 AI서버에 탑재되는 고부가 D램인 DDR5 16Gb의 평균 현물 거래 가격은 5.08달러로 한달전보다 6.4%p(포인트) 상승했다.

박강호 대신증권 연구원은 "낸드플래시 가격이 오는 4월에 오를 전망이고, D램 재고 조정 효과로 가격이 안정돼 올해 2·4분기 이후 D램 가격 상승도 예상되는 등 메모리 산업의 회복이 가시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트럼프發 달러 약세 예상 유럽·亞증시로 분산 투자”

2025 100세 플러스 포럼
김영익 교수 “은행 대출 변동금리 저축은 고정금리로 빨리 가입해야”
염승환 이사 “트럼프 투자 늘리는 산업 중심으로 주식 확대도 방법”



이 가계부채로 물러가게 부채가 급증했다”고 설명했다. 가계부채가 증가하면 대출 상환 부담이 커지면서 소비가 감소한다. 2003~2024년 국내총생산(GDP)은 연 평균 3.3% 상승했지만, 민간소비는 2.3% 증가했다.

김 교수는 “2023년 가계부채가 증가한 이후 민간소비 증가율은 GDP 성장률보다 민간소비 증가율이 낮아졌다”며 “내구재-준내구재-비내구재-서비스 순서로 소비가 둔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가계부채 증가로 인한 소비감소가 저성장의 요인이 된다는 설명이다.

수출 증가세도 둔화하고 있다. 지난 2월 하루 평균 수출액은 23억9000만 달러로 1년 전보다 5.9% 감소했다.

이날 김 교수는 저성장과 저금리 시대에는 근로소득의 중요성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2013년 3월 보험 회사에서 즉시 연금으로 2억원을 가입했는데, 그해 51만원을 수령했지만, 10년 뒤 연금이 끝나는 시점에는 수령액이 28만원으로 줄었다”며 “한달 일해 30만원을 벌면 2억원의 금융자산을 보유한 것과 같은 현금흐름을 가진다”고 말했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야 한다면 ‘변동금리’로 받고, 저축은 고정금리로 빨리 가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날 염승환 LS증권 이사는 미국 트

럼프 정부의 관세(보복)정책으로 물가가 오르고, 이민 정책으로 외국인 근로자가 줄어 노동력이 감소하면 경제성장률이 하락하는 등 달러 가치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미국 증시에 집중했다면 유럽·중국·일본·한국 증시로 분산·확대해야 한다는 의미다.

트럼프가 투자를 확대하는 산업을 중심으로 주식을 확대하는 것도 방법이다. 염 이사는 “트럼프가 제조업을 부흥시키며 콘크리트, 시멘트, 산업용 장비, 제조공정 자동화, 디지털화를 위한 인공지능(AI) 등의 종목 등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고 있다”며 “K화장품, 식품 등도 눈여겨보아야 한다”고 말했다.

호지영 우리은행 세무컨설팅팀 세무사는 작지만 확실한 체테크 방법으로 절세전략을 제시했다. 10년 동안 증여세를 받은 사람을 기준으로 계산을 하므로, 기간과, 증여순서에 따라 세금을 아낄 수 있다고 했다. 예컨대 1살 A씨가 미성년자 공제금액인 2000만원을 아버지가 주고, 6년 뒤 할아버지가 2000만 원을 주었다면 10년 이내 2000만원 이상을 받아 과세대상이 되고, 세대 생략 증여로 30% 할증이 붙는다. A씨가 1살 때 할아버지가 증여하고 아버지가 6살에 증여하면 세액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증여공제가 가능한 10년이라는 기간은 현 수준에서 10년을 말한다. 26세라면 17세부터, 10세라면 1~10살까지, 25세라면 16~25세까지의 기간이다. /나유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이재명, 공직선거법 2심 ‘무죄’

1심 판결 뒤집어 대권 가도 청신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재판부가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는데, 이를 뒤집은 것이다. 이에 따라 이 대표의 대권 가도에 청신호가 켜졌다는 분석이다. <관련기사 6면>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 이예슬·정재오 부장판사)는 26일 오후 2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대표 측 주장을 인정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재명 대표는 2021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 도시개발공사 개발 1차장과 관련해 ▲성남시장이었을 때 김문기의 존재를 몰랐다 ▲경기사자가 되고 기소된 이후 김문기를 알게 됐다 ▲해외 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소감을 밝히고 있다. /손진영 기자 son@

을 했는데, 해당 발언이 허위라는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대표가 같은해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교통부 협박으로 백현동 개발 부지 용도를 상향 조정했다’는 취지로 허위 답변한 혐의도 적용했다. <6면에 계속>

/서예진 기자 syj@

메트로 한줄뉴스



-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역대 최악의 산불 기록을 갈아쓰고 있다” /사진 뉴시스
- ▲ 한국노총 “尹 지금 즉시 파면해야... 농단 부러도 피할 수 없어”

- ▲ 민주당 “오늘 윤 선고일 지정 안하면 비상행동 격상... 광화문서 철야농성”
- ▲ 輿, 천안함 15주기 안보 행보... “민주, 자폭설 지금까지 사과 없어”

- ▲ 이준석 “尹 선고, 4월로 넘어갈 가능성... 민주당, ‘출탄핵’ 땅치고 후회할 것”
- ▲ 해군, 서해수호의 날 계기 해상기동훈련... 수상함 30여척 참가